

제사와 차례 그리고 성묘의 차이



전 형 일

세상이야기

제사(祭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인간의 보편적인 신앙이자 풍습이다. 그 대상은 토함을 포함한 천지의 신과 조상들이었다.

따라서 제사는 유가(儒家)로부터 비롯된 것도 전유물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사는 유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을 다스리는 도(道)에서 예(禮)가 필요하다. 예에는 오경(五經)이 있는데,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예기’)

유(儒)의 어원 자체가 ‘사람(人)이 비(雨)를 구하는(儒) 것’으로 이는 무당을 뜻한다. 이들은 주나라부터 왕실 족보를 체계화하고 제례를 관장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현재 제사는 크게 기제사(忌祭祀)와 차례(茶禮), 그리고 흔히 성묘(省墓)라 부르는 묘제(墓祭)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는 모두 조상을 추모한다는 의미는 같으나 그 기원과 형식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일반적인 제사인 기제사는 해마다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 특정한 분을 가리는 의례다. 시간은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간(子時, 23시 30분~01시 30분)에 지내는 것이 전통적 관행이다. 형식도 길고 복잡하다.

제사의 ‘제(祭)’는 고기 육(肉)과 보일 시(示)가 결합한 글자로, 사육제(酬肉祭)가 변형됐다고 할 정도로 고기는 물론 밥과 국, 생선과 전, 과일 등 많은 음식이 올라간다. 이처럼 제사 음식이 푸짐한 것은 많은 참석자들의 식사까지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차례는 술을 금지하는 불교의 영향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닌 특정한 날(설, 추석) 오전에 조상님께 드리는 집안의 통합 의례다. 음식도 명절의 특색인 떡국이나 송편을 올리고 제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소제(素祭)로 검소하다. 과정도 제사는 술을 세 번 올리고 반드시 축문(祝文)을 읽는 삼헌독축(三獻讀祝)이나 차례는 축문 없이 술을 사용해도 한 번만 올리는 등 간소하다.

유교에는 명절 제사가 없다. 따라서 차례는 후손이 모여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성묘는 순전히 토속신앙에서 출발했

다. 유가는 신주(神主)라 불리는 위패(位牌)에 제사를 지내고 불교는 화장을 권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가야 사람들은 수로왕릉 옆에 사당을 짓고 일 년에 네 차례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묘제로 이어지고 있다.

성묘는 중국에도 없는 풍속으로 주자도 집안에 조상의 사당인 가묘(家廟)의 제례는 자세히 규정했으나 무덤의 제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은 무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당시 전체 송사(訟事)에서 묘지 소송(山訟)이 무려 80%를 차지했다고 한다.

유교권 국가 중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하지만 당시 유학자들도 묘제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처럼 우리 제례도 모든 문화처럼 관습에 유교, 불교 최근에는 서양 종교까지 혼합되면서 발전해 왔다. 예법에 ‘시대 흐름에 적합한 예’라는 ‘시례(時禮)’가 있다. 제례도 근본정신은 기억하되 시대와 세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前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빛속의 생존, 이제 본령을 증명할 때



허 정 윤

(자본시장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4일 저녁. 고단한 하루를 마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근길을 돌려 국회 앞으로 향했다. 우비와 플래카드 위로 붉은 빛방울이 떨어졌지만 “금융원 분리 결사반대”, “금융 소비자 보호하자”라는 구호는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조직 보전이 아니라, ‘분리’가 소비자보호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외침은 정치권을 움직였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통합감독기구를 지키려는 금감원의 논리가 받아 들여졌고,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피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곧 정당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제

금감원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이찬진 원장은 곧바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이라는 대대적 쇄신안을 꺼내 들었다. 민원부터 검사, 상품심사까지 한 줄로 묶는 ‘원스톱 체계’ 조직개편,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듣는 ‘민원상담 데이’ 운영,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다. 시민들이 “금감원이 ‘진짜’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보인 장치들이다. 이렇게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와 행동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금융 감독’의 본령을 잃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의 최우선 임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시스템 리스크 차단이다. 허술한 인허가와 규제 완화가 어떤 재앙을 불렀는지 우리는 저축은행 사태와 사모펀드 부실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번 사태는 정치의 입김과 관료적 이해가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일부 전

문가들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감독정책을 일정 부분 공적 민간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감위도 금감원 내부 위원회로 두어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국회가 특별법으로 민간기구에도 일정한 공권력을 부여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지는 문제의식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비 오는 날 거리로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이 외친 목소리는 단순한 생존 투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독 현장에서 그날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금감원은 스스로를 구한 이유를 증명할 차례다. 소비자보호라는 약속에 안주하지 말고, 건전성과 독립성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정치적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독기관의 길이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일 (음 8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정확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48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60년생 꿈을 버리지 마라. 72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84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37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49년생 상쾌한 바람이 부니 일도 상쾌하게 마무리됨. 61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정겹다. 73년생 자축은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85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38년생 남의 탓보다는 평소 무책임한 자신을 돌아보라. 50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피해를 본다. 62년생 바쁘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 74년생 현 위치에서 자아의 눈을 다시 떠보는 것도. 86년생 집안의 문화를 현대에 맞춰 살피해보도록.



3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51년생 새로운 만남으로 얻은 정보가 이익을 가져온다. 63년생 호시마바라 자기 능력을 펼쳐 재물을 낸다. 75년생 모든 것을 혼자 맡으니 결과가 보람 있다. 87년생 근면 검소한 생활 태도를.



40년생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 운이 온다. 52년생 특출난 아이디어로 명망을 얻는다. 64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좀 긍정적으로. 76년생 양보다 질을 중시하니 마음이 바빠진다. 88년생 농사지를 땅을 살 때는 정말 신중히.



41년생 아침부터 마신 술잔이 온종일 간다. 53년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65년생 공개에서도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고 했다. 77년생 자식의 돈지갑도 생각해줘야. 89년생 대차관계에서 탈이 없도록 문서처리를 확실히.



42년생 집안이 소란해도 의지가 굳으면 흔들림이 없다. 54년생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66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78년생 무리한 미팅은 과한 자출로 이어진다. 90년생 돌다리도 두들겨야 지리발을 밟지 않는다.



43년생 내키지 않아도 즐겁게 하도록. 5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67년생 투자한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이다. 79년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 91년생 무슨 일이든지 위험이나 책임은 따르게 마련.



44년생 부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이어진다. 56년생 어려운 일이 닥치니 미리 대비하자. 68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80년생 영업이득이 나지 않아도 초지일관하고 분투하는 정신을. 92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다.



45년생 재산문제가 닥치면 피하지 말고 정면대응을. 57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69년생 삶에는 위험요소가 늘 있는 법. 81년생 기존의 틀 습관에서 벗어나면 길이 보일 것. 93년생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46년생 재개발단지에서 제의가 들어오니 신중히 임하면 성사. 58년생 가까운 곳에 잠시 여행을. 70년생 중요한 연락이 닿으니 약속준수. 82년생 새로운 일에 투자할 생 각이면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라. 94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7년생 배우자에게서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즐겁다. 59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뜻대로 풀린다. 71년생 고집 피우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83년생 놀다 보니 모아 둔 비상금이 바닥난다. 95년생 잡동사니 같은 방 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



김상회의四季

추석 감회

귀뚜라미가 우는가 했더니 추석이 코앞이다. 매미가 여름의 대표 주자라면 귀뚜라미는 뽀뽀 뽀뽀해 가을의 전령사다. 고려 때 저술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보면 궁녀들이 궁궐 안에서 귀뚜라미를 키웠다는 내용인데, 궁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궁녀들이 어릴 적 고향 집에서 들던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향수를 달래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누군가는 귀뚜라미를 ‘소울 곤충’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작은 벌레여도 해충이 많은데 귀뚜라미는 인간에게 위협은 커녕 오히려 수심을 달래주고 위안과 안심을 선사하는 것이다. 올 추석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황금연휴 중에서도 최상이다. 열흘에 달하는 기간이 연휴가 되니 말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외침이 절로 나올 것만 같다.

한편으로는 직장인들이야 연휴가 길어도 유급휴가이니 충전의 시간일 수도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그 기간 수익이 줄 수밖에 없고, 연휴가 길다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도 아닐 테니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터에다 근심이다. 그래도 추석은 좋다. 추수가 웬만큼 진행된 들녘의 풍광도 파사하고 햇사과며 햅쌀로 가게마다 풍성하니 먹지 않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아침저녁으로 몸에 착 달라붙는 선선함도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데, 한낮의 따끈함은 인디언 썸머의 호사를 누리게 한다. 점점 명절차례를 지내는 집도 줄어들고 있지만,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은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여여적적(如如適適)한 때 형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앉아 약속들을 하며 회포를 풀다가 신문이나 뉴스의 한 면을 얘기하는 일도 단골 뉴스이다.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아 상심하여 일어나는 불상사도 올해엔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스도쿠 365

스도쿠 110

스도쿠 153

5				9		7	8	1
8						3		
1	4			2	8			
				2		6		
2		4	6		9	5		7
			5		4			
					3	5		7
		2						3
3	7	1		6				9

1				7		3		4	9
6		3	4	9					
								9	
8				6				3	2
	9		3		8			5	
5	6			3					4
	3								
					4	7	3		5
3	4		6		2				8

6	7	8	2	9	5	1	4	3	6
8	9	1	4	7	2	6	9	3	5
2	1	5	6	8	9	7	3	4	2
8	1	2	9	7	1	5	6	3	4
1	6	9	6	1	9	7	8	2	5
7	6	9	8	2	1	5	4	3	6
9	9	6	8	2	1	7	4	3	5
1	2	8	5	4	9	7	6	1	3
1	8	1	7	6	8	9	2	5	3

8	1	6	2	9	5	1	7	3	4
9	1	6	1	7	2	9	8	6	3
1	9	7	6	8	1	5	4	3	2
7	8	2	1	6	8	2	9	5	3
9	9	1	8	1	6	2	6	7	4
2	8	1	7	9	5	6	1	3	4
6	6	9	1	8	7	2	1	4	3
1	2	8	9	6	7	8	1	3	5
6	7	9	6	2	1	8	5	3	4